

2025년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5.4.29.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7/10	6	1	14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장, 장래숙 위원, 김영진 위원,
이인복 위원, 윤지석 위원, 이진희 위원, 김미화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	3	3	-	1	8	-	8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8	-	-	8

다. 전월(3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CCTV 영상 보도> 화면에 명재완 교사의 얼굴과 봉지를 들고 다니는 CCTV 영상을 함께 보여줘서 끔찍한 생각이 들었음	말씀하신 CCTV 영상은 흥기를 구입해서 봉지를 들고 가는 장면인데 앞으로 편집에 더 유의하도록 하겠음 <25. 4월 조치>	'25.3월
보도	<자막과 내용 불일치> 자막에는 '경력 단절 탓 남녀 임금 격차'라고 했는데 내용은 돌봄 일자리에 대한 저임금 저평가 문제로 이해함	해당 보도에 대한 기사 내용을 보고 제목을 꼼꼼하게 챙겨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 내용에 부합되게 제목을 챙기도록 하겠음. <25. 4월 조치>	'25.3월
보도	<뉴스진행자 호흡> 새로 투입된 앵커의 발음은 좋는데 호흡이 빨라서 전문적인 용어나 처음 듣는 단어는 듣기가 어려웠음	경력이 있어서 진행이 안정적인데 방송 첫 날이라서 긴장해서 호흡이 빨라진 것 같음. 호흡을 가다듬고 전달력에 집중해서 읽어달라고 전달하겠음 <25. 4월 조치>	'25.3월
교양	<자막 오타> '미국 제재 뚫고' 라는 자막에서 제재에 오타가 났는데 치명적인 실수로 안타깝게 느껴짐	오타의 티 하나 때문에 프로그램 품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겠음 <25. 4월 조치>	'25.3월
교양	<전문 용어 설명> 답시크 관련해서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말씀해주셔서 좋았는데 영어 용어가 계속 나와서 집중력이 떨어짐	답시크 등 관련해서 전문 용어가 있을 때는 자막으로 용어를 설명해 포인트를 잡게 보완하도록 하겠음 <25. 4월 조치>	'25.3월
교양	<2025년 연중캠페인> 2022년부터 연중캠페인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데 2025년은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부탁함	올해 주제는 '당신이 네모입니다' 로 네모안에 주인공, 사랑, 최고 등 제목을 바꿔가면서 제작을 할 예정임.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고 진행되면 업데이트를 하겠음 <25. 4월 조치>	'25.3월
교양	<토론 패널 구성> 현재 재판이 늦어지면서 피로도가 높다는 토론을 하는데 법조인은 없고 정치인들만 나와서 각 당의 입장만 주고받아서 차별성을 못 느낌	선고가 지연되면서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법률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쉽게 해설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보겠음 <25. 4월 조치>	'25.3월
교양	<인생내컷 출연자> 인생내컷의 주인공으로 출연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섭외하는지 궁금함	PD와 작가가 발품을 팔아서 섭외를 하기도 하고 인터넷 서치나 촬영을 다니다가 추천을 받기도 함. 좋은 출연자를 찾는데 관건임 <25. 4월 조치>	'25.3월
교양	<유성장터 만세운동 관련> 유성장터 만세운동이 대전 최초의 만세운동으로 방송해준 것은 훌륭했음. 그러나, 재현식을 유성의병사적비 앞에서 하다 보니 관계자들이 유성장터 만세운동이 을미의병의 효시라는 시간이 뒤집힌 발언을 하는 데 2개의 기념식이 분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방송해 주길 바람.	인터뷰 중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음. 향후 제작시 진행자에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고 방송 진행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또한 유성장터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방송을 만들겠음. <25. 4월 조치>	'25.3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5년 4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25.04.30
위원	장래속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대전광역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 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 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시의사회 부회장	대전광역시시의사회	과학기술단체	23.05.01~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인권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 가족센터 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05.01~26.0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05.01~26.0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05.01~26.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편성	<라디오 개편 관련> 손에 잡히는 경제가 라디오 개편으로 불방이 되는데 다음 개편 때는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제고해 주기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성심당 컴플레인 제보 관련> 성심당 컴플레인 제보 보도를 봤는데 성심당이 소비자한테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궁금했음	회의록 첨부	○		
보도	<대선 공약 관련> 지역 공약들이 대선 때마다 계속 재탕되는 느낌인데 왜 해결이 안 되는지와 잘 해결된 공약들과의 비교 분석도 해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조리원 파업 관련> 힘든 노동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 처우에 대한 불만도 있어 보이는데 학생들 피해가 없도록 갈등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도해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문화나들이 코너 관련> 문화나들이 코너가 무겁고 시청자들에게 예술이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좀 더 밝게 다뤄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문화예술 관련 토론 주제 선정> 시시각각에서 영시축제 등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를 주제로 토론을 해주고 이슈화 해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창사60주년에 큰 이슈를 던졌던 다큐멘터리의 하위 범주 이슈들로 경쟁력 있는 다큐멘터리를 더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음	회의록 첨부	○		
기타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방송사 영상 콘텐츠나 뉴스를 외부에서 시청자들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함	회의록 첨부	○		

2025년 4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5년 4월 29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7명)

손병우 위원장, 장래숙 위원, 김영진 위원,

이인복 위원, 윤지석 위원, 이진희 위원, 김미화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경영국장

지금부터 4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10분 중에 7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은 16건인데요. 저희가 라디오 편성을 바꾸면서 <건강한 아침 유진입니다>에 대한 편성 불만이 7건 올라왔고요. 기타 문의와 요청 등 9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4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바쁘신 중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2년 동안 저희를 도와주신 많은 위원님들의 마지막 회의라서 서운하기도 합니다. 2년 동안 저희들한테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회사의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조언들 감사드리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이지만 가감 없는 고견들 부탁드립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번에는 시청자위원을 대표해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저희가 2년 임기가 다 끝나면서 돌아보니까 작년 전반기에 같이 하셨던 위원님들과 후반기에 또 같이 하고 계신 신입 위원님들 모두 좋은 분들 만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기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모니터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MBC 프로그램들이 역량을 모으면 전국 최고의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방송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시청자위원회 회의날짜가 될 때마다 한 달이 빨리 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음 달부터 회의에 참석 못하는 금단 증상이 언제까지 갈지 궁금하고, 그래서 대전MBC 방송을 꾸준히 계속 보고 가끔씩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장님들과 진종재 사장님 그리고 김환균 사장님과 회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월 한 달 동안에 모니터 한 내용들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숙 위원님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숙 위원

저는 처음에 MBC에 왔을 때의 느낌보다는 지금 마음이 새롭게 MBC를 보는 눈이 트이고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자리매김 했다고 생각했구요. 처음에는 시청자위원이다 보니까 뉴스나 프로그램에서 뭔가 지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며 모니터를 했는데요. 2년 동안 겪으면서 MBC 직원들이 너무 애쓰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지적보다는 사랑스럽고 안쓰러워 보여서 MBC는 내 일상 속의 한 부분처럼 느껴졌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MBC가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MBC 직원들과 국장님들 진짜 열심히 하고 애쓰는 모습들도 눈으로 보고 느꼈습니다. 2년 동안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면 <손에 잡히는 경제>는 제가 아침 출근길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인데요. 다음 개편 때는 의견을 잘 들어서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제고 부탁드립니다.

손병우 위원장

이어서 김영진 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저는 보통 안 좋은 얘기 위주로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2년 동안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위원회보다도 모든 국장님들이 참석하셔서 직접 피드백까지 주시면서 소통하시는 모습이나 더 나은 방송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많이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 달에 이슈가 됐었던 영상 중에 성심당 딸기 이슈가 있었잖아요. 곰팡이가 나왔다는 데 댓글을 보니까 성심당 대응도 좋았다고 하는데 제보자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제보자에 대해 얘기할까 보니까 일반적인 제보와 비교했을 때 달랐던 게 소비자가 기업의 물건을 샀을 때 불만이 있으면 물건을 산 곳에 불만을 제기하고 환불을 요청하는데 대체로 기업들은 잘못 없다고 발뺌하거나 그 문제 제기에도 부정하면 그때서야 보통 언론 보도를 하잖아요.

‘소비자분이 이런 문제가 생겨서 기업에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이 기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기업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보통 세 단계를 거치는 것 같은데 이번 성심당 같은 경우는 소비자분이 성심당한테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성심당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부분이 계속 안 나와 있더라고요. 댓글에 많은 분들이 성심당에 환불이나 교환해 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다 했을 거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제보만 한거나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MBC의 잘못은 아니지만 보통 소비자분들의 컴플레인 제보는 기업이 나한테 대응을 제대로 안 해줬다는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일들이 있으면 기업들이 처음에 그 소비자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주시면 좀 더 쉽게 뉴스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대선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역 공약 보도도 나오고, 시사각각에서 다루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 공약들이 대전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게 그 동안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었던 건데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는 이슈들이 대부분 지역 공약화가 되잖아요. 그 지역 공약이 어떤 대통령이 되던 간에 난제에 속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그 지역 공약 자체가 재탕되고 하는데요.

이번에 공약 관련해서 MBC에서 다루실 의향이 있으면 지금까지 이 공약이 몇 번째 반복되고 있고 그동안 왜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공약을 완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나 개선점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이 더 많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교도소 이전은 계속 안 되고 있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화상경마장 폐쇄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실제로 잘했거든요. 잘 된 공약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밀리는 공약들이 있는데 그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이슈를 만들어 주시면 정치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시민분들도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공 데이터 활용하는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언론사들 기사나 제보 관련해서 API나 RSS같은 서버 내용들을 많이 요청하는데 방송사들 같은 경우는 영상 매체 특성 때문인지 별도의 API 서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따로 관리하시는 서버나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이런 공공 데이터들을 잘 제공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AI 관련해서든 혹은 어떤 데이터를 연동할 때 지역 이슈들이 AI 쪽에서 다 누락돼서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개인이 활용하는 차원을 떠나서 지역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이 자동으로 데이터에 연결돼야 되는데 각 언론사나 방송사 사정에 따라 차별성 있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쭙봤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다음은 이인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인복 위원

저는 문화예술 단체의 대표성 또는 상징성을 갖고 시청자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한번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문화예술 이야기를 잘 전달했을까, 또 드렸던 말씀들은 어떻게 반응이 되었을까, 그 과정 중에 저는 정말 참석을 잘 했는가 하는 반성이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대전MBC에 일관되게 부탁드렸던 부분이 문화를 소개해 주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리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문화와 예술은 분명히 다릅니다. 생방송<오늘M>에서 ‘문화 나들이’ 코너가 있는데 대전에서 주말만 되면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찾아가는 문화가 있다면 ‘문화 나들이’가 맞겠지만 그런 문화가 아니고 아직은 공연이라든지 전시 예술을 소개하는 부분인 거죠. 생방송<오늘M>에서 밝고 재미있게 가다가 ‘문화 나들이’ 코너가 되면 굉장히 무거워져요. 사람들은 예술을 어렵다고 바라보는 인식이 있는데 너무 예술을 깊이 있게 설명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어렵고 무겁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 쪽을 많이 더 받게 다루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사각각>을 보면서 문화 예술 쪽을 토론으로 다뤘던 주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역 서점 관련 한 번 있었더라고요. 영시 축제부터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예술 또는 문화 쪽 토론을 해 주시고 이슈화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위원회를 떠나지만 MBC 방송을 보면서 여전히 문화 예술을 만들어 가는 데 MBC가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이어서 윤지석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윤지석 위원

4월 25일 홍준표 대선 후보의 부인이 대전을 방문했는데 다른 대선 후보들도 앞으로 다녀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대전에서 다룰지 서울에서 다룰지는 몰라도 후보자들의 워크 포인트를

유권자들이 찾을 수 있게 방송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역 사회의 문화행사나 지역축제 등 다양한 것들을 대전MBC에서 보여줘서 감사하고요. 군수나 시장 인터뷰보다는 지역민들의 인터뷰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서천의 수산물 촉진 행사가 대전에서 열려서 대전과 지역 간에 소통하는 모습들이 좋았는데 4월 26일 뉴스를 보면 텐트 화재라든지 여관 화재, 인분 기저귀로 교사를 때렸다는 보도같이 인상이 찌푸러지는 뉴스 보다는 선행이나 아름답고 감동이 있는 뉴스를 내 보냈으면 어떨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4월 22일 키포드 사고 뉴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겁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부르는데요. 전에 김환균 사장님이 대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빌릴 때 돈을 내면 그 중에 몇 퍼센트는 개인 보험에 가입해 사고가 났을 때 대전시나 빌려주는 회사에서 보험으로 해결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4천 원에 빌리면 그 중에 500원 정도는 보험료로 책정돼 사고가 나더라도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4월 13일 <시시각각>에서 지역공약 관련해서 계속해서 대전교도소, 혁신도시, 세종 행정도시 완성 등 공약이 재탕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시시각각> 등에서 대전이나 세종 지역에 맞는 대선 공약을 발굴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픽이나 도표가 약한데 요즘은 오픈AI 챗GPT를 이용하면 그래프나 도표도 만들어주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 영시 축제가 교통 약자를 위해서 열흘간 그렇게 막아도 되는 건지, 동서 또는 남북 도로 둘 중에 하나는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MBC에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대가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한가운데 있어서 교통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월드컵 응원전 행사 때에도 가운데 도로는 막지 않고 네거리 하단 쪽에 무대를 설치해 동서 도로는 갈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둔산 쪽에서 야구장 가는 도로는 적어도 연결은 해줬는데 지금은 한가운데 무대를 계속 고집하거든요.

제가 대전시장님이나 관광축제팀장님한테도 수도 없이 건의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MBC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시 축제가 과연 구도심 상권에 효과를 줬는지 한 번쯤 분석이 필요하고요. 대전 시민의 돈으로 열흘간 그렇게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7일도 좋고 3일도 좋은데 혹시 그렇지 않겠지만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 운동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나 세세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MBC 시청자위원으로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손병우 위원장

네 다음은 이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진희 위원

지난겨울 광장에서 취재하고 보도하시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실 것 같고요. 제가 만족스러운 만큼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굉장히 성장하는 시간이었고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 대전MBC가 굉장히 시민 친화적인 방송이라는 생각과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시각각>에 대해 재탕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오랫동안 교도소 이전 얘기를 듣긴 했는데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나갔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목요일 밤으로 옮기면서 토론의 내용들을 구체화시키겠다는 다짐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파면 이후 그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방송이 답답했는데 균형을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으나, 아무래도 국힘 당사자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병권 사회자께서 애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균형을 맞추는 일과 내용에 집중해서 토론하는 역할들을 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방송의 흐름이나 내용면에서 사회적 약자를 놓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생내컷>에서 거리의 제빵사 박두현 선생님 내용 중에서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은 ‘봉사를 하지 않으면 허전하다’는 삶의 자세를 표현해 내는 것들을 보면서 따뜻함과 헌신적인 내용들을 공감할 수 있었고, 아카펠라 나린을 보면서 ‘본인이 아카펠라를 하면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대목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영위하는 청년들의 삶의 모습들을 조명해 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구나 하고 느꼈고,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 주셔서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전MBC를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다음은 김미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미화 위원

4월에 갑자기 추웠잖아요. 냉해가 와서 배꽃이 열고 과일값 폭등이 우려된다고 뉴스에서 짚어 주신 부분은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농민 고충을 위한 지원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내주셨다고 생각했고,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한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을 텐데 특히 봄에 뭔가 시작하는 시기에 벌써부터 피해가 극심한 부분들까지 관심 갖고 다뤄주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조리원들과의 갈등 관련해서는 통미역으로 하면 그걸 다 자르다보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육체

노동이 너무 심하다는 걸 보면서 충분히 사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미역을 불려서 해본 사람은 아는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가서 오히려 요령 있는 사람은 말랐을 때 부셔서 하는 사람들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측에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같이 잘 몰랐던 사람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만 힘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처우에 대한 또 다른 얘기도 있을 것 같고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갈등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어 나갈 필요가 있는지 계속 관심 갖고 뉴스로 보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은하의 <FM모닝쇼>를 출근 시간에 많이 듣는데 DJ가 10년은 넘은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떡 사세요' 코너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분에게 그렇게 전하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는데 계속하고 있어서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내컷>중에서는 저도 비슷하게 봤는데요. 제빵사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YMCA 노래 중에 '선한 이웃 좋은 세상'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정말 봉사과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 주셔서 좋았어요. 특히 아카펠라 내린은 국외에서는 인기 있는 분인데 대전에서 활동하는 대전MBC 홍보대사인 걸 몰랐고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내컷>에서는 보통 연륜이 많이 있고 한 길을 굉장히 오래 걸어온 20~30년 이상 된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셨는데, 젊은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새로운 분야에 관심 갖고 도전하는 모습들은 사람들이 모델로 삼을 것 같아서 좋게 봤고요.

특히 피리 부는 남자를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희귀한 분야인 거예요. 피리를 직접 만들고 연주도 하는 거예요. 피리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는 예술가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4월에 냉해도 있긴 했지만 봄처럼 따뜻한을 전하는 <인생내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좋은 말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마지막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아주 꼼꼼한 모니터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SKT 유심 문제잖아요. 사고는 터졌고 유심이 부족해서 줄은 서 있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체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사고가 벌어진 거더라고요. 외국 같으면 사고를 막기 위해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고 SKT는 망해버리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SKT가 우선 안내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무슨 통신사

가입했는지도 모르고 쓰고 있는데 SKT에서 '당신은 고객이고,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 중에 있고,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안내가 와야 되는데 그런 안내가 전혀 없대요.

우선 해당 업체에서 소비자에 대한 도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언론에서 그런 안내를 대신해서 SKT의 올바른 자세를 촉구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이건 전국 이슈도 아니고 지역 이슈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SKT 사고 관련해서 실질적인 안내가 될 수 있게 수시로 보도, 토론, 브릿지 등을 내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시기로 들어서면서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이 뭔지, 실질적으로 수용 가능한 요구공약 몇 가지를 대전MBC가 구심점이 돼서 시민들의 의견, 특히 전문가들이나 시민 단체들의 의견들을 모은 후 몇 개로 축약해서 전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함께 했는데요. 그 사이에 대전MBC 창사 60주년 1년을 고스란히 함께해서 정말 기뻐고요. 특히 대전MBC 프로그램을 어떻게까지 만들 수 있는지 역량도 봤기 때문에 60주년 때 새롭게 띄우셨던 포맷들을 출연료가 싼 출연자들로 해서 포맷을 계속 이어가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고요.

또 큰 이슈를 던졌던 다큐멘터리들의 하위 범주의 이슈들로 다큐멘터리들을 더 이어가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들의 의견은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뉴스와 보도제작에 뼈와 살이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심당 딸기 곰팡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솔직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워낙 친근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까 제보자들의 내용도 봤지만 일단 저희가 문제를 삼고 싶었던 거는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였고 거기서 잘못하고 있었던 건 냉장 유통 시스템이 없다는 지점이었고 그 것을 성심당쪽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혀주셔서 그런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취재했던 내용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성심당을 옹호하시는 댓글 조회수가 120여만 건씩 되는데 소비자들은 성심당 편이시더라고요. 당혹스러웠습니다.

대전 공약 관련해서는 너무 좋은 말씀들이셨고요. 저희가 <시시각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전 세종 충남 공약들을 긴 시간 동안 다루고 있었는데 세종 같은 경우 행정 수도를 만들기 위

해서 대선 주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개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동국대 법학 교수님 한 분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행정수도 관련법을 만들어서 위헌법을 심판을 받게 된다면 현재 분위기가 합헌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정수도가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셔서 토론하면서도 이게 새로운 방법론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별도의 꼭지로도 만들 예정이고요.

대선 관련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 합쳐보면 1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충청도 연간 예산이 10조인데 그 10배가 넘는 걸 요구하고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선별해서 어떤 공약을 제일 빨리 실행시켜야 되는지 대선기간인 6월 3일 전까지 축약해서 보도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시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겠죠. 근데 그 효과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 개념으로 한번 분석해 보는 기회를 가져볼까 준비하고 있고요.

급식 조리원 문제는 길게 다뤄보지 못했지만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 분들이 조리흥이라고 고통 받는 상황이 있다는 건 많이 알려진 상황인데 근로 조건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교육 관련 예산들이 국가에서는 지방에서 알아서 부담하라는 식으로 자꾸 바뀌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뉴스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거고요.

<시시각각>에서 문화 이슈를 다뤄달라는 말씀이셨는데 '나린'이라는 가수들은 4-5년 전 코로나 시기에 대전문화재단에서 온라인 공연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때부터 저희와 인연이 돼서 소개가 됐고, 저희가 제작하는 다큐에 항일 음악 복원하는 쪽에 출연했었고 지금도 계속 활동하면서 커가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슈는 단편적으로나 집중적으로도 다뤄도 좋지만 대전MBC 전체적으로 '나린'이라는 친구들이 키워낸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포털 뉴스가 숙원이었는데 다음 채널에 입점했습니다. 다음 포털에 들어가셔서 대전 MBC 채널을 검색하시면 만날 수 있거든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전MBC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장래숙 위원님께서 <손에 잡히는 경제> 다시 한 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항의 전화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연출하는 11시대 <3830 상담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시간짜리 프로그램인데 의사가 출연해서 의학 정보도 전해주고 어르신들이 병원 가기 전에 질환을 상담하면 전화로 답변해 주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출연해 주셨던 피부과 원장님께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지역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

하십니까> 12부작을 일단 내보내면서 의사를 계속 섭외했었는데 섭외가 안 됐어요. 진료 때문에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의사 선생님들은 계속 하고 싶어 하셔서 고민하다가 방송시간을 줄여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옮길 수 있는 시간대가 8시와 8시 반이 있거든요. 8시면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1, 2, 3부 중에 3부를 자르고 예전에 <시대공감>처럼 들어가게 되고요. 8시 반 <손에 잡히는 경제>로 들어가면 처음부터 <손경제>를 받지 않고 5분짜리 법률 프로그램까지 연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부산하고 대구는 원래부터 그 시간대를 지역에서 쓰고 있거든요. <달구벌 만평>, <자갈치 아지매>를 방송하고 있어서 그 지역 사람들은 <손경제>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지역에서는 듣다가 못 들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욕을 먹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개편한 것이고, 또 어르신들한테도 전화가 와서 <3830 상담실> 어디로 갔냐고 물어서 8시 반으로 옮겼으니 그 시간에 들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면 안심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프로와 경제 상식을 특히 이진우 기자가 잘 해주기 때문에 둘 다 소홀히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인데, 일단 건강 프로그램을 8시 반에 편성을 했다고 항의가 있다고 해서 바로 내릴 수는 없는 거고요. 6개월 정도 지켜본 다음에 어떤 게 득이 되는지 검토해 본 후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젊은 층은 라디오앱인 미니를 통해 <손경제>를 듣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시간 타깃 연령층을 조금 높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복 위원님께서 문화를 소개하고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다른 아이টে에 비해서 분위기가 약간 무겁고 어렵다고 하셨는데 더 쉽고 밝은 분위기로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클럽의 댄스동아리나 버스킹 공연도 모두 문화이긴 하잖아요. <오늘M> '문화나들이' 말고도 <인생내컷>에서도 문화는 빠질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문화나들이' 코너가 다른 코너에 비해 가라앉지 않도록 제작진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윤지석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다양한 행사에 군수, 시장 인터뷰 보다는 지역민들 인터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사 시즌이 돌아오면 군수, 시장 인터뷰를 소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님께서도 거리의 제빵사 박두현 회장님하고 아카펠라 그룹 나인을 말씀하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한 길만 걸어가는 분들의 삶에 대한 조명은 숙명인 것 같습니다.

김미화 위원님께서도 이은하 FM모닝쇼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8년까지 하고 그 뒤에 이은하 DJ가 방송을 했으니까 17년째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때도 '떡 드세요' 코너가 있었거든요. 근데 떡을 받으신 분들이 상한 것 같다고 컴플레인을 걸면 저희는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교환권으로 주기도 하고 변형은 됐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장수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인생내컷>에서 도전하는 삶이 긍정적인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을 준 것 같아서 좋다고 하셨는데 계속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좀 더 연속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역 방송이다 보니까 지역 생존이라든지 또 노인이나 소외계층의 활기찬 삶을 조명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학생과 교사의 동행 프로젝트들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고해드리면 <애들은 가라 1호점> 12부작이 만들어집니다. 활기찬 노인의 삶을 조명하는데 노인 팝업 스토어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그램과 비슷한데 주인공들이 노인이 되고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 노인들을 위한 편의점에는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약간 실험적인 프로그램이 12부작으로 하반기에 방송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고등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고민들을 잘 들어보는 6부작 프로그램 <오지랖 보건실>도 올해 방송됩니다. 이것도 제작에 들어가구요. 또 매운 맛에 열광하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인의 매운맛의 매력을 찾아가는 UHD 다큐멘터리가 가을에 방송되고요.

또 작년에 지역생존 프로젝트를 지역생존 AI프로젝트로 바꿔서 올해도 라디오와 TV로 만들어지고, 또 지역MBC 9개사가 <한국의 둘레길>이라는 명품 자연 다큐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걸 나중에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해 대전MBC가 제작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진 인프라국장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 관련해서 일단 대전MBC에서 가지고 있는 방송테이프 콘텐츠를 전부 파일화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걸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전체 콘텐츠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 절반을 파일화를 해야 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파일화를 한다는 건 테이프 있는 내용을 하드에 저장하는 작업을 선제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1년 안에 끝낸다고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완성이 되면 일반 시민들이나 시청자들이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게 공동 서버에 장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논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서울MBC 뿐만 아니라 16개 계열사를 통틀어서 민방이나 KBS는 잘 모르겠으나 지상파방송에서 그런 것들이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 문제와 저작권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논의되는 것들이 MBC쪽만 얘기하면 권역별로 클라우드 서버에 공동으로 구

축하자 또는 서울이나 다른 한 곳에 서버를 구축해서 거기에 공동으로 보관해서 서로 공유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가닥은 안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계속 논의하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자료만 해도 TV방송을 71년도에 시작했는데 약 30년 치의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작업이거든요.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아직 큰 가닥은 안 잡혔으나 계속 AI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파일을 어떻게 공동으로 운영할 지는 본사를 비롯해서 계열사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큰 가닥이 잡히면 시청자분들한테도 공유해 드릴 예정이구요. 현재까지는 유튜브에 업로드 시킨 옛날 자료들과 보도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포털 입점을 하게 돼서 거기에 올린 자료들은 얼마든지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방송사가 VOD 콘텐츠들이 엄청 많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KBS와 EBS 빼고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듣긴 했었는데 보통 외부에서 요청하실 때 방송 콘텐츠들도 많이 요청을 하시겠지만 공공 데이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대체로 뉴스 쪽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시는 곳들은 말씀하신 대로 몇 십년치를 다 하는 건 어려우니까 예를들어 2020년부터 최근까지의 뉴스 데이터부터 먼저 데이터화시켜서 API를 공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단계적인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걸 다 올리는 건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고 디지털화가 어느 정도 되는 시기부터 정해서 올리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언론진흥재단 등에서 최근 들어 방송사들 API들을 조금씩 수집해서 공개를 하거나 오픈 소스 형태로 프로젝트 한 것도 조금씩 공개하는데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에 어쨌든 그런 소스를 만드는 개발자들이 워낙 많으셔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끼리들을 많이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병우 위원장

오늘도 시청자위원회가 보람되고 알차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임세혁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 참신한 아이디어로 보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임으로 오시는 시청자위원님들과 함께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안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마지막 날까지 고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나시더라도 저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방금 임국장이 자랑을 너무 조금 했는데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고요. 보도 쪽에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다큐멘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프로그램 전체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작PD와 기자들의 크리에이티브를 그냥 방송하는 게 아니라 정부로부터 인증 받고 지원을 받아 제작하게 됐다는 약간의 자랑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떠나시더라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각 분야에서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신 의견들을 소중하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상으로 4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